

# 가을 불교문화행사 '풍성'

**음악회**  
오페라 '원호'  
불국토, 천년의 소리

**전시회**  
경주판화전  
제23회 전승공예대전  
제17회 불교미술대전

**연극**  
느낌, 극락같은

**영화**  
종교영화제

마냥 어디론가 떠나고 싶은 계절. 가을이 점점 무르익고 있다. 고단한 일상을 잠시 떨쳐두고 낙엽지는 길을 걸으며 음악회장이나 미술전시장을 찾기에 좋은 때이다. 마침 '불국토, 천년의 소리', '천만불자화합을 위한 대음악제', 오페라 '원호', 연극 '느낌, 극락같은' 등 대형 무대와 각 전 사회가 곳곳에서 마련되고 있어 불자들의 발길을 기다리고 있다.

특히 이번 공연에는 불교 전통의식인 '예불'의 전 과정을 음악화한 대형무대가 2개 마련되며 신라문화의 보고이며 세계문화유산인 경주 불국사가 국악공연, 오페라 등의 무대로 쓰이게 돼 한층 관심을 끈다. 이번 가을에 열리는 음악회, 미술전시회, 연극, 영화제 등을 알아본다. <표 철호>

'98 세계문화엑스포를 기념해 경주에서는 다양한 문화행사가 개최된다. 김영동의 '불국사 천년의 소리여행'과 오페라 '원호' 그리고 영산대제와 각 전시회가 그것.

특히 26, 27일 불국사 대웅전앞에서 열리는 김영동의 '불국토, 천년의 소리여행' 음악회는 1부와 2부로 나뉘어 2시간동안 펼쳐진다. 1부는 서울시립국악관현악단이 '영산회상'을 시작으로 '바람의 소리' '역사의 강' 등 명상음악의 정수들이 1시간동안 연주되며 이때 대웅전 좌우에 설치한 스크린으로 스님들의 참선하는 모습이 비쳐지고 창작무용도 곁들여진다. 2부에서는 전통악기와 40여 스님들의 독경소리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사물소리와 대금독주가 어우러지면서 '예불' '안행' '참선' '승무' '반야심경' '청운교 백운교 지선

법기' 등이 공연되고 전 관객들이 참여하는 탐돌이로 회향하게 된다.

11월 4일 서울 집실 제조경기장에서 열리는 '천만불자화합을 위한 대 음악제' 역시 '예불'을 관현악과 합창으로 재구성했다. 교계 최초의 대규모 관현악단인 '비사관현악단' 창단기념으로 열리는 이번 음악제에는 찬불가와 국악, 가요 등의 공연도 마련된다. 18~20일 불국사경내 특별무대에서 공연되는 오페라 '원호'는 총 출연진이 266명이라는, 오페라사상 가장 많은 인원이 등장하는 대형오페라.

서울연극제의 일환으로 18~24일 서울 동숭동 문예회관 대극장에서 울려지는 '느낌, 극락같은'은 우리시대 최고의 극작가와 연출가로 평가받는 이강백씨가 창작하고 이운택씨가 연출한 정통 불교연극이다. 합숙적인 심오한 대사들이 한변쯤 자신의 생활을 돌아보게 만들 것이다.

새로운 불교미술작가들의 참신성과 기량을 볼 수 있는 제17회 불교미술대전은 10월 17일부터 24일까지 인사동 공평아트센터에서 열린다. 전통의 맥이 끊겼다가 이번에 재연시켰다는 '건칠지불'을 비롯 다양한 불교공예품을 감상하려면 중요회화대전에서 열리는 전승공예대전을 찾아가면 될 것이다.

10월 7일부터 27일까지 음악회와 미술전시회, 영화제, 학술세미나로 열리는 종교예술제는 불교 개신교 가톨릭 원불교 유교 등 각 종교인들, 예술작품으로 승화시킨 뜨거운 신상에 공감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이경숙 기자 (jslee@buddhopia.com)

### <음악회>

행사명	날짜	장소
오페라 '원호'	18~20(오후8시)	경주 불국사
김영동의 '불국토, 천년의 소리'	26~27(오후6시)	경주 불국사
종교음악제	10.27	서울 예술의전당 음악당콘서트홀
선재어린이합창단 창단 연주회	10.31 (오후7시30분)	경주서라벌문화회관
천만불자화합을 위한 대음악제	11.4(오후7시)	서울잠실제조경기장
다악(茶樂)발표회	11.15~16	서울국립국악원 예악당

### <전시회>

행사명	날짜	장소
정영형유작전-침묵의 빛	9월27일까지	경주시립미술관
'천년의 향기-경주 판화전'	9월25일까지	경주문화엑스포유정관
'거장(장욱진, 박생관, 김진규)의 향기 전'	9월20일까지	서울가나화랑
제23회 전승공예대전	9.25~10.31	서울종교문화회 전시관
종교미술제	10.9~10.16	예술의전당 미술관 3층
제17회 대한민국 불교미술대전	10.14~10.21	서울공평아트센터
조선후기국보전	10월11일까지	용인 호암갤러리
석천 이경희의 백팔심경도사전	10.25~10.30	서울세종문화회관 제3전시실
임무상개인전	11.4~11.10	서울동덕아트갤러리
세계문화유산사진전	9.26~10.10	경주문화엑스포명실
경주 남산사진전	10.22~10.31	경주문화엑스포유정관

### <영산대제·연극·영화>

행사명	날짜	장소
연극 '느낌, 극락같은'	9.18~24	서울문예회관대극장
신라불교 영산대제	10.9(오전10시)	경주 불국사
종교영화제	10.9~10.20	한국영상자료원영상실
멀티미디어아트쇼 '미소의 저편'	9.11~11.10	경주문화엑스포주예관

## 일상의 잔잔한 '속삭임' 진실 추구하는 詩作 40년

### 고은 신작시집 '속삭임'



속삭임

'민족시인' '청년시인' 등 고은 시인에게 수 많은 수식어가 따라 다닌다. 왕성한 필력과 그 뛰어난 민중혼을 일깨워 준 그의 문학에 대한 정열은 문학이 삶 그 자체이고, 삶이 곧 문학임을 보여준다. 그런 그가 동단 40주년을 맞아 신작시집 <속삭임>(실천문학사 刊)을 펴냈다.

이번 시집의 특징은 하나의 주제나 소재를 집중적으로 다루던 종전과는 달리 일상의 잔잔함을 잔잔히 펼쳐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그 파문같은 잔잔함에서 깨달음을 보여준다.

시 '선운사 동운암 비탈길에서' 고은 시인은 지나는 날들을 후회하고 앞으로 남은 것을 어찌할 것인지 고민한다. 그런 반대쪽 한 편에서는 '입은 웃 그대로 왜 그런지 새롭습니다/사람에게는 10년 20년의 가파로운 단련

으로/이루어지지 않는/어떤 물음이 잠겨 있습니다/반쯤 혹은 다 물속에 잠겨/ 그것이 있는지 없는지 모릅니다/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돌길' 中)라며 또다른 삶을 꿈꾼다.

아름과 절망마저도 이고 가야 하는 여정. 그 길을 고은 시인은 아름다운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불혹의 시들은 그렇게 삶을 채색하며 내면의 진실을 추구한다. 깨달음이란 것이 바로 이런 것인가. 한명우 기자 (mwihan@buddhopia.com)

## "연꽃통해 생명근원 발견해요"

### 사진집 '蓮' 펴낸 이태영씨



사진작가 이태영씨가 사진집 '蓮'을 펴냈다. "단순히 연꽃의 아름다움을 찍는 것에서 벗어나 연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근원을 밝히고 싶었습니다. 연을 통해 세상에 따라 굴절되어 가는 우리들의 마음을 바로잡고 영원히 존속해야 하는 참나를 발견했으면 합니다." 그가 찍은 연꽃은, 연꽃을 주체화하는 카메라의 테크닉에 의해 부분적으로 핵심을 잡는 작업으로 한층 조형적이면서도 추상화하는 데 성공적이라는 평가다.

경북 청도군 이서면 학산리 요강지에서 연꽃의 사계를 담기 위해 5년간의 세월을 보냈다는 이

태영씨는 "연꽃은 찍으면 찍을 수록 신비롭고 청정한 정신이 느껴집니다. 앞으로도 철학적이고 이미지화된 연의 모습을 포착하는 일을 계속하고자 합니다."

자연의 이미지를 카메라에 담기를 즐겨하는 이태영씨는 지난 95년 자연의 사계를 담은 사진집 <사계-1>을 냈으며 신라미술대전, 경북미술대전, 대구사진대전 등의 추천작가로 활동하고 있다. 이경숙 기자

### '한국전통예술지보' 공연

동국예술기획(대표 박동국)은 13일부터 30일까지 일본 도쿄를 비롯 11개 도시에서 '한국전통예술지보(韓國傳統藝術至寶)' 제목으로 예술공연을 갖는다.

후쿠오카 나가사키 등 대도시뿐 아니라 다카나베 구루메 오무타 이쓰카-다케오 등 지방의 소도시를 순회하는 이번 공연에는 임이조씨가 '태평무' 이상 강씨의 '대금산조' 정명재씨의 '살풀이' 임경주씨의 가야금산조 등 명인들이 동참해 우리 가락과 춤 등 한국전통예술의 아름다움을 일본인들에게 소개하게 된다.

### 19~20일 김달진 문학제

월하 김달진 선생을 추모하는 제3회 김달진 문학제가 19~20일 '한국시의 미래'란 주제로 경남 진해에서 열린다.

첫날에는 개막식에 이어 한국회귀작지전, 옛 생활사 구술대회, 월하 전국백일장, 문학심포지엄 등이 열리고 둘째날에는 김달진시인의 생각을 찾는다.

이번 문학제에는 시인 신경림 김홍길 강은교 문학평론가 김홍규 김윤식 씨등 1백여 문인이 참가한다.

### 불심시심 (144)

이별에 남는 정

故人迎我書 (고인영아희) 옛 친구는 기쁨으로 나를 맞아  
款款一遊場 (관관일유장) 오손도손 정다운 한마당 놀이  
捫鼻論論論 (눈송달론도) 이 잡으며 진리 논의 마땅하고  
掃塵可臥床 (소진가와상) 먼지 쓸어 침상에 누울만도 하다  
窈窕看日色 (객공간일색) 나그네 지팡이 한낱 햇빛 살피며  
村酒入花香 (촌주입화향) 마을집 술에 꽃 향기 묻어들다  
離別猶餘意 (임별유여의) 떠나려 하니 그래도 남은 정 있어  
慇懃更把鱖 (은근경파상) 은근히 다시 잡게 되는 술잔.

정월(澄月)대사의 '아침에 도량을 떠나며(朝發場內)' 라는 시이다. 시 자체로 놓고 보면 꼬집어 승려의 시라 할 수 없을 만큼 담담한 늙은 선비의 일상사라 할 수 있겠다. 여기서 우리는 세속을 떠나 있으면서 세속을 오히려 담담히 받아들이는 대덕들의 초탈성을 이해하게 된다.

첫구에서 다정히 맞아주는 친구가 있어. 이 시가 정다운 두 사람의 일상사가 담담히 제 기필 것을 예견하게 된다. 그 정다운의 실질적 표현이 관관(款款)이라는 외래어이다. 오손도손이라 번역해 보았지만 그것으로 이 두 사람의 정리가 드러나는지 모르겠다.

이를 잡는다는 말이 꼭 잠잠해 보인다. 이잡음도 행위의 한 동작이니 분주한 몸놀림의 한 단면으로 봄이 울을 터이나, 오히려 한가함의 전형적 모습이다. 대담 토담집 토방의 햇살 아래이든, 한방의 집화로의 불기 옆이든, 이는 분명 여가의 한가한 작업이다. 이러한 한가함이 노스님의 무심한 동작으로 이어지면 그대로 시간과 공간이 동시에 멈춰지는 일사사라 할 수 있겠다. 여기서 우리는 세속을 떠나 있으면서 세속을 오히려 담담히 받아들이는 대덕들의 초탈성을 이해하게 된다.

한낱의 지팡이가 멈출 곳을 찾았다. 촌주라는 마을술은 그 자체로도 향기롭다. 그런데 꽃에 들어 향기롭다(入花香) 하였다. 소박하고 훈훈한 인정이 느껴진다. 그저 입맛이 당기는 시어들이다. 결국 이 정에 이끌려 발길이 잘 떨어지지 않는다. 향시 여유로운 정이다. 다시 술잔 들어 한 잔 더 권하는 수밖에 없는 순간이다. 아무 해아릴 없는 도인의 모습을 연상케 한다. 이종찬(동국대 명예교수)

### 문화재소식

강릉 문화유적 지도

강원도에서는 처음으로 강릉시가 문화유적 분포를 한눈에 알 수 있는 문화유적 분포지도로 제작했다.

강릉시는 지난해 5월 1억원의 예산을 들여 강릉대박물관에 지도제작을 의뢰 15개월 만에 분포도를 완성했다.

유적지도는 지정문화재와 비지정문화재, 매장 문화재는 물론 강릉단오제 등 민속과 천연기념물 명승지 등 3백71점의 유형형 문화유산에 대한 분포지역을 도면 상에 표기하고 뒷면에 사진과 상세한 설명을 곁들였다.

시 문화체육과 관계자는 "문화유적분포지도로 각종 공사허가 때 참고자료로 활용한다면 문화재 훼손도 막고 발굴조사에 따른 피해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圓照覺性 대강백스님 화엄사상 강설

通玄장자의 화엄사상과 淸涼국사의 화엄사상 비교

▶ 일시 : 1998년 9월 셋째, 넷째주 월, 화요일 21일 22일 28일 29일(4일간) 오후 7시

▶ 장소 : 화엄회관 강당 (성원서면 주차빌딩 2층/부산진구청 후문 옆)

▶ 수강료 : 없음

---

### 圓照覺性 대강백스님 화엄사상 강설

80 화엄경 입법 계 품

▶ 일시 : 매월 첫째, 셋째주 화요일 오후 7시

▶ 장소 : 화엄회관 강당 (성원 서면주차빌딩 2층/부산진구청 후문 옆)

▶ 수강료 : 월 15,000원

---

### 圓照覺性 대강백스님 강의 테이프(비디오·녹음)보급

▶ 과 목 : 80화엄경, 법화경, 능엄경, 금강삼매경, 초발심자경문, 대승기신론, 유식론, 육조단경, 금강경, 선관책진, 천태사교의, 불조지심체요결(적지심경), 대도적지중용적지, 천부경, 원인론 등.

**韓國佛教映像通信講院**  
전화 : (051)809-8945  
전송 : (051)809-8946

## 황토 토굴

생명의 진화성을 가진 흙중의 흙 - 황토!  
황토 토굴은 오랫동안 한국에서 정진하는 스님들에게 맑은 정신과 편안함을 주며 생체 활동을 활발하게 해준다.

.....  
황토 토굴은 바로 자연의 숨결을 직접 느낄 수 있게 해주는 "생명의 물질"인 것이다.  
.....

● 황토 토굴 ① 3평형 ② 5평형  
「선조님들의 토굴방 그대로」  
황토의 효능을 느끼지 못하시면 전액 환불하여 드리고, 「평생무료관리」를 약속드립니다.

**황토 토굴 사업본부**  
주소 : 경상남도 창원시 상남동 1-5번지 대한상가 402호 연건축사 내  
TEL: 0551)282-7629 H: 017)585-6045  
FAX: 0551)283-6531

'나무아미타불'을 염(念)하면 누구나 극락왕생할 수 있다!

극락왕생을 위한 염불의 의미와 공덕

극락왕생을 위한 가장 손쉽고 공덕이 큰 수행법!

▶ 나무아미타불을 염하면 어떤 공덕이 있는가?  
▶ 염불을 통해 극락왕생한 사람들의 이야기!  
▶ 임종을 앞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극락왕생할 수 있는가?  
▶ 염불에는 어떤 방법들이 있는가?

128쪽 / 값 3,500원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 종로구 청진동 6번지 T. 720-9372, 3